

『꽃 파는 처녀』의 신파성과 대중성 그리고 상호텍스트성

조성면*

1. 북한문학 연구와 제3의 길
2. <꽃 파는 처녀>의 장르 확장과 서사의 통속성
3. 『꽃 파는 처녀』와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의 상호텍스트성
4. 결론에 대신하여—북한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 모색을 위하여

국문요약

북한에서 『꽃 파는 처녀』는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통하는 작품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은 북한식 문학예술의 한 범주로 연극과 가사 등 김일성 및 김정일의 창작과 지도로 만들어진 ‘항일무장투쟁기’의 혁명예술들을 가리킨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는 『피바다』·『한자위단원의 운명』·『성황당』·『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꽃 파는 처녀』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은 대개 연극과 혁명가극(북한식 오페라)은 물론 영화와 소설로 제작되는 등 대부분 장르적 변용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꽃 파는 처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극과 영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77년 4·15창작단에 의해 장편소설로 만들어진 소설 텍스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다. 『꽃 파는 처녀』는 연극·가극·장편소설·아동문학·화폐의 도안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주로 활용되는 북한식 이념의 문화콘텐츠 곧 혁명의 원소스멀티유

* 인하대 교양교육원 강사

즈라 할 수 있다. 『꽃 파는 처녀』는 연극·가극·영화 등 복잡한 경로를 거쳐 소설이 된 작품이다. 이런 복잡한 텍스트 형성 과정과 역사로 인해 오히려 그것은 북한문학의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최적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꽃 파는 처녀』는 주인공 꽃분이와 동생 순희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 철용 등 일가족을 중심으로 배지주 부부와의 계급적 갈등과 향거를 서사의 중핵(kernel)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배지주의 소작인으로 살아가는 꽃분이 일가를 비롯한 가난한 마을사람들과 일제 경찰·군수 등과 결탁한 배지주 부부와 갈등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꽃분이 일가의 수난과 혹독한 삶이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꽃 파는 처녀』는 항일혁명의 전통과 인민대중의 사상무장과 계급교양이라는 대원칙과 창작방법에 충실한 작품으로 주체예술의 전형이자 정전(正典)으로 통하지만 이념의 잣대를 걷어내고 오직 스토리와 미적 형식만을 놓고 본다면, 신파극이나 대중소설에 가깝다. 『꽃 파는 처녀』의 신파성과 통속성은 일차적으로 인민대중을 위한 예술 곧 문학예술을 통한 사상교육과 당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문학의 대원칙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목적과 원칙에 대한 강한 지향이 작품의 신파성과 통속성이라는 미적 부작용을 배태하게 된 것이다. 『꽃 파는 처녀』의 주요 스토리텔링 전략은 정형화한 선악 이분법, 감정의 과잉, 우연의 남발, 조력자(helper)의 존재, 그리고 반전과 비약 등이다. 『꽃 파는 처녀』는 이 같은 통속소설의 면모 외에도 독일의 신낭만주의작가로 분류되는 아르투어 슈니츨러(Arthur Schnitzler, 1862~1931)의 단편소설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Der blinde Geronimo und sein Buder, (1900)과 강력한 상호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가난한 고아형제(자매)·실명한 동생·음악연주와 구걸 등 주요 모티프에 있어서 상당부분 일치하고 유사하다. 슈니츨러와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24년부터 《개벽》지에 소개되거나 1938년 유치진에 의해 번역되어 연극무대에 올려졌다. 또 1954년 10월 안수길에 의해 《학원》에 번역,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이상 재출간을 거듭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자가 후자의 영향을 받았거나 모티프를 차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와 같이 『꽃 파는 처녀』는 계몽과 선전이라는 혁명문학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독자와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신파적이고 대중적인 스토리에 외국문학을 텍스트의 목적과 흐름에 맞게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대중적 소설, 곧 이념과 통속과 신파가 결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 북한문학이 표면적으로는 주체를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외국문학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꽃 파는 처녀, 혁명가극, 아르투어 슈니츨러,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 상호텍스트성, 통속성, 신파극, 북한문학)

1. 북한문학 연구와 제3의 길

『꽃 파는 처녀』¹⁾는 북한에서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통하는 작품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은 찬사가 아니라 북한식 문학예술의 한 범주로 연극과 가사 등 김일성 및 김정일의 창작과 지도로 만들어진 ‘항일무장투쟁기’의 혁명예술들을 가리킨다. 북한이 주장하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는 『피바다』·『한 자위단원의 운명』·『성향당』·『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꽃 파는 처녀』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꽃 파는 처녀』는 『피바다』·『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과 함께 북한 내에서 특별

1) 텍스트가 장편소설인 경우에는 『꽃 파는 처녀』로 그밖에 연극·혁명가극·영화 그리고 범칭으로 사용할 때는 〈꽃 파는 처녀〉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한 주목과 조명을 받는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대개 연극과 혁명가극(북한식 오페라)은 물론 영화와 소설로 제작되는 등 대부분 장르적 변용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꽃 파는 처녀〉는 1972년 영화화되어 같은 해 11월 체코 카를로비바리(Karlovy Vary)에서 개최된 제18회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고, 2012년 12월에는 단일가극으로 1500회 공연을 돌파했으며 주인공 꽃분이 역을 맡은 인민배우 홍영희가 북한의 지폐 도안에 포함되는 등 압도적인 영향력과 지명도를 가진 작품이다. 북한의 문학사와 『문학예술사전』에 따르면 『꽃 파는 처녀』는 ‘10월 혁명’ 13주년을 기념하여 1930년 만주 오가자에서 김일성의 창작과 지도로 초연된 고전적 작품이며, 1972년 김정일의 지도하에 가극으로 각색되었고, 동년 7월 영화로 만들어졌다. 〈꽃 파는 처녀〉는 『문학예술사전』에 두 개의 항목에 걸쳐 소개되어 있는바, 첫 번째 항목은 연극이며 두 번째 항목은 혁명가극이다. 각 항목마다 줄거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해설이 붙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꽃 파는 처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극과 영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77년 4·15창작단에 의해 장편소설로 만들어진 소설 텍스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다. 〈꽃 파는 처녀〉는 연극·가극·장편소설·아동문학·화폐의 도안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주로 활용되는 북한식 이념의 문화콘텐츠 곧 혁명의 원 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꽃 파는 처녀〉는 인민의 교양과 선전 선동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작품의 이념적 지향이나 구성 그리고 스토리 전반에 걸쳐 서사표현의 방식만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장르의 텍스트들이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장편소설 『꽃 파는 처녀』에 다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문학연구의 방법과 관점을 반성적으로 살피고 객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학 연구하는데 있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의 하나로 연구 대상이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텍스트의 자기규정력을 꼽을 수 있다. 기실 북한문학 연구는 여전히 냉전주의 또는 반공주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북한문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진보적 연구도 북한문학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삼가고 입을 다무는 침묵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문학 연구가 가진 일반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문학 연구에 나타난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또는 냉전주의를 넘어서 또 연구대상의 자기규정력으로부터 벗어나 북한문학을 실상 그대로 읽어낼 방법은 무엇인가.

일찍이 북한문학연구의 선편을 잡은 김재용은 북한문학 이해를 위한 시각으로 모두 일곱 개의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1) 한국 근대 민족문학의 역사적 도정에서의 검토, (2) 탈냉전의 시각 견지, (3) 리얼리즘의 본래적 의미에 입각하기, (4) 북한의 문예정책 내에서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율성 고려, (5) 소련 문학의 영향에 대한 검토, (6) 시기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차이를 읽어낼 수 있는 역사주의적 시각의 확보, (7) 개작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같은 철저한 원전비평 등을 북한문학 연구에서 전제되어야 할 시각으로 꼽았다.²⁾ 이는 북한문학에 대한 뿌리 깊은 반공주의적 선입관이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맹목적 추수주의에서 벗어나 북한문학을 근대문학연구의 도정 속에서 냉정하게 살피려는 90년대 진보적 문학연구의 관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북한문학 이해를 위한 시각”으로 제시한 일곱 가지 태도는 모든

2)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문학과지성사, 1994), 11~15쪽.

개별 작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특히 『피바다』·『한 자위단원의 운명』·『성황당』·『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 등과 함께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지칭되는 〈꽃 파는 처녀〉는 혁명가극·영화·소설·아동문학으로 만들어져 북한에서 가장 널리 공연·상연·관람·출판되는 혁명예술의 OSMU이자 공식문학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위에서 제시한 관점만으로 온전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아주 같지도 않으면서 전혀 다르지도 않은 스토리를 반복하면서 상투화한 패턴과 뚜렷한 선악이분법 등 강력한 장르규칙과 문법으로 인해 이른바 장르문학으로서의 면모를 지닌 『꽃 파는 처녀』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때문이다. 가깝게는 한국의 전통서사와 근대계몽기의 신파극 그리고 구소련이나 중국이 아닌 동구 또는 유럽문학의 영향관계 등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³⁾

『꽃 파는 처녀』는 북한문학 연구의 일반적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가극과 연극 그리고 소설 텍스트를 함께 검토하면서 『꽃 파는 처녀』의 텍스트 형성 및 구성에 크게 영향을 준 다양한 요소들, 특히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아르투어 슈니츨러(Arthur Schnitzler, 1862~1931)의 소설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Der blinde Geronimo und sein Buder)』(1900)과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3) 북한문학 및 연구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 연구 성과로 이상숙·김재용·김성수·유임하·김경훈·남원진·서동주·성근제·신지연·오미정 공저, 『북한시학의 형성과 사회주의 문학』 전6권, 소명출판, 2013을 참고.

2. 〈꽃 피는 처녀〉의 장르 확장과 서사의 통속성

〈꽃 피는 처녀〉는 1930년 11월 7일 김일성의 지도하에 창작되어 만주 오가자 지역에서 처음으로 초연되었다⁴⁾고 전해지나 항일 빨치산투쟁의 와중이었고 또 선전선동을 위한 공연물이라는 텍스트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사료가 존재하기는 어렵다. 이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2년 피바다 가극단에 의해 혁명가극으로 재창작되면서부터이다. 뒤를 이어 같은 해 7월 백두산영화제작단 주도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130분짜리 극영화로 만들어졌고, 그해 11월 체코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꽃 피는 처녀〉는 일약 북한 주체예술의 정전(正典)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꽃 피는 처녀〉의 부상은 1960년대 가극 창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6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춘향전〉과 〈심청전〉 등의 전통 창극과 〈견우직녀〉와 〈온달전〉 등 서구풍의 가극이 널리 공연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는 전통양식에 현대적 음악을 결합한 혁명가극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꽃 피는 처녀〉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등장하여 북한 예술계의 신화로 등극하게 된다. 이 시기에 나온 이른바 5대 혁명가극은 〈피바다〉(1971), 〈당의 참된 딸〉(1971), 〈꽃 피는 처녀〉(1972),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 〈금강산의 노래〉(1973) 등이며, 그밖에 〈은혜로운 해빛아래〉(1972), 〈연풍호〉(1973), 〈남강마을 녀성들〉(1974), 〈청춘과원〉(1974), 〈한 자위단원의 운명〉(1974), 〈밝은 태양 아래에서〉(1976) 등도 혁명가극의 주요 작품들로 거론된다.⁵⁾

4) 윤혜숙, 『책을 내면서』, 『그림책 꽃 피는 처녀』, 금성청년출판사, 1985.

5) 배성인, 『북한의 혁명가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5대 혁명가극을 중심으로』, 『극동문제』 제28집, 2003. 11, 90~91쪽.

〈꽃 파는 처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1999년 8월 13일 1,000회 공연을 돌파⁶⁾하였고, 2012년에는 1,500회 공연 기록을 세운다. 이 사이 가극 〈꽃 파는 처녀〉는 1977년 4·15창작단에 의해 장편소설로 만들어졌으며, 1985년에는 아동문학가 윤혜숙이 컬러판 삽화가 곁들여진 청소년용 그림책으로 각색하였다.⁷⁾ 연극·혁명가극⁸⁾·무용 대본·장편소설·그림책·영화·화폐 도안 등 〈꽃 파는 처녀〉는 북한 혁명예술의 원 소스 멀티유즈, 곧 혁명의 콘텐츠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꽃 파는 처녀〉가 1930년 김일성 주석에 의해 창작되고 공연되었다는 주장은 있지만, 〈피바다〉와 달리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사료가 제시된 적은 없다.⁹⁾ 『해방 후 10년간의 조선문학』(1955)¹⁰⁾·『공

6)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 1,000회 공연 진행』, 《로동신문》, 1999. 8. 13.
 7)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장편소설 『꽃 파는 처녀』는 1977년 문예출판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출판되었으며, 1985년(윤혜숙, 금성청년출판사)·1989년(평양출판사) 본이 있다. 한국(남한)에서는 1989년(황토)·1989년 상, 하권(열사람)·1989년 상, 하권(아침) 등이 있다.
 8) 가극과 교향곡용 대본으로 만들어진 출판물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 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총보)』, 문예출판사, 1973; 2·16예술교육출판사 편,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 문예출판사, 1988 등을 비롯하여 김연규, 『(교향곡)꽃 파는 처녀』, 문예출판사, 1987 등이 있다.
 9) 〈피바다〉는 김일성이 1936년 8월 만주 만강부락에서 만든 〈혈해〉라고 하나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1961년 윤세평이 〈혈해〉의 이본 〈혈해지창〉을 발견하였다. 윤세평이 발견한 〈혈해지창〉은 1937년 까마귀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다. 신형기, 『북한 소설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6, 106-108쪽.
 10) 안함광·한효·엄호석·윤세평·김명수·박종석, 『해방 후 10년간의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북한에서 1955년도는 정치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1955년 12월 15일 마침내 연금 상태에 있던 박헌영을 제거함으로써 김일성은 북한에서 명실상부한 절대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한효의 『민주건설 시기의 조선문학』과 엄호석의 『조국 해방전쟁시기의 우리 문학』 등을 보면 인민대중을 위한 문화적 예술적 계몽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며(한효, 86쪽), 입화와 카프에 대한 비판(엄호석, 187-88쪽)과 함

산주의 교양과 우리 문학』(1959)¹¹⁾·『조선문학사년대표』(1961)¹²⁾ 등 1972년 이전의 주요 문학사나 각종 저작물 및 저널에서도 〈꽃 파는 처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찾아내지 못했다. 특히 1961년 조총련 산하기관인 출판사 학우서방에서 펴낸 『조선문학사년대표』에도 193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산출된 주요 작품으로 『피바다』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피바다식 가곡’이자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평가받는 〈꽃 파는 처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보면 1972년 혁명가곡으로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꽃 파는 처녀〉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1930년대 창작, 공연되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텍스트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제한된 여건 내에서의 조사이긴 하지만, 〈꽃 파는 처녀〉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은 1972년 4월 20일자 《로동신문》¹³⁾과 《조선문학》 8, 9합호¹⁴⁾에서부터이며, 문학사나 각종 문헌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었던 『꽃 파는 처녀』가 그 이후부터는 『조선문학사』(1981)·『조선문학사』 제2권(1982)·『조선문학개관』 제2권(1986) 등에서 갑자기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도 이채롭다. 이런 점들이 〈꽃 파

께 “김일성 원수의 격려의 말씀”과 영도(176쪽)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민주건설과 인민대중의 사상무장을 위한 문화예술적 계몽운동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던 시기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인 〈꽃 파는 처녀〉가 동원되지도 않았고 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도 주목해볼만하다.

11) 최탁호·김재하·한중모·김하명,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 문학』, 과학원출판사, 1959.

12) 『조선문학사년대표』, 학우서방, 1961.

13) 〈꽃 파는 처녀〉를 언급한 문헌은 1972년 4월 20일자 《로동신문》에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부인 김성애 동지께서 캄보자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 친왕 부인을 방문하시고 예술영화 〈꽃 파는 처녀〉를 함께 보시었다.”

14) 『불멸의 기념비적 명작 ‘꽃 파는 처녀’에 대한 반향』, 《조선문학》, 1972. 8-9호.

는 처녀)의 1930년 창작설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 창작이라는 절대권위에 김정일의 지도와 각색까지 가세하게 되어 텍스트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고, 나라 안팎에서 좋은 평가와 반응을 이끌어내자 <꽃 파는 처녀>는 일약 불후의 고전적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연극에서 가극으로, 다시 영화 등으로 장르 확장을 거듭해온 <꽃 파는 처녀>는 1977년 4·15창작단에 의해 장편소설로 탄생되면서 마침내 장르변용이 모두 마무리된다.

『꽃 파는 처녀』는 연극·가극·영화 등 복잡한 경로를 거쳐 소설이 된 작품이다. 이런 복잡한 텍스트 형성 과정과 역사로 인해 오히려 그것은 북한문학의 특수성을 살펴보는데 최적화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물론 소설과 선행 텍스트들 사이의 큰 차이는 없다. 매체상의 차이점을 사상하면, 작품의 기조나 서사 구조 등에서도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다. 그럼에도 소설이 <꽃 파는 처녀> 장르확장 현상의 최종 텍스트라는 점에서 장편소설 『꽃 파는 처녀』의 의미는 간단하지 않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꽃 파는 처녀』는 주인공 꽃분리와 동생 순희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 철용 등 일가족을 중심으로 배지주 부부와의 계급적 갈등과 항거를 서사의 중핵(kernel)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즉 배지주의 소작인으로 살아가는 꽃분이 일가를 비롯한 가난한 마을사람들과 일제 경찰·군수 등과 결탁한 배지주 부부와 갈등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꽃분이 일가의 수난과 혹독한 삶이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항일혁명의 전통과 인민대중의 사상무장과 계급교양이라는 이른바 “공산주의 인간학”으로서의 원칙과 창작방법에 충실한 작품이 바로 『꽃 파는 처녀』이다.

북한에서 『꽃 파는 처녀』는 주체예술의 모범이자 정전(正典)으로 통

하지만 이념의 잣대를 걷어내고 오직 스토리와 미적 형식만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신파극이나 대중소설에 가깝다.¹⁵⁾ 『꽃 파는 처녀』의 신파성과 통속성은 일차적으로 인민대중을 위한 예술 곧 문학예술을 통한 사상교육과 당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문학의 대원칙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목적과 원칙에 대한 강한 지향이 작품의 신파성과 통속성이라는 미적 부작용을 배태하게 된 것이다.¹⁶⁾ 우선, 꽃분이의 형상과 그가 처한 상황 자체가 신파다. 병든 몸으로 배지주집에서 종살이하는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꽃분이는 저자거리로 꽃을 팔러 나간다. 여기에서 꽃분이는 우연히 당사주를 뵈주는 노인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는다.

꽃분이의 하소연은 끝났으나 로인은 눈시울만 습벅거렸다. 주름살에 에워싸인 로인의 눈굽이 축축히 젖어있다.

《그러니 아버지는 머슴 살다 돌아가시구, 오빠는 감옥소에 잡혀가구 어머니마저 병들어 앓고 계시는데 어린 동생은 눈까지 멀었던 말이나? 허참, 세상에! …》¹⁷⁾

이 장면은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꽃분이가 처한 상황과 작

15) 〈피바다〉, 〈꽃 파는 처녀〉, 〈승냥이〉 등 혁명과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영화를 신파극의 차원에서 살핀 연구도 있다. 서정남은 북한영화가 스토리와 플롯과 인물 등 여러 측면에서 신파적 상황과 장면이 예술적 규약처럼 한두 차례 이상 반드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정남, 『북한영화탐사』, 생각의 나무, 2002, 192-97쪽.

16) 북한에서는 인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용하고 무익한 예술적 해악으로 간주된다. 모든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과 평이함을 추구하며, 이 같은 통속성 내지 대중성을 “피바다식 창작원리”라 통칭하기도 한다. 천현식,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감정훈련: 집단주의와 ‘지도’와 ‘대중’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Vol. 13, No. 3, 2010, 215쪽 참고.

17) 『꽃 파는 처녀』, 황토, 1989, 158쪽. 이하 작품분석에서는 1989년에 황토에서 나온 책을 텍스트로 삼을 것이며, 이하 쪽수만 표시함.

품의 스토리를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해설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꽃분리와 일가족의 비극적 상황을 보다 더 객관화해줌으로써 향후 이들이 난관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또한 향후 전개되어야 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암시하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면들은 대중성의 확보 및 강화라는 창작의도에 충실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꽃분리와 그의 가족의 겪는 시련과 고난을 전경화하는 것은 작품을 신파와 통속화로 몰아가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꽃 파는 처녀』의 신파성과 통속성은 주인공 꽃분리의 처지와 몇몇 디테일들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다. 그것은 서사구조와 인물의 형상화 그리고 창작방법에 이르기까지 작품 전반에 두루 걸쳐 있다. 작품을 이끌어가는 『꽃 파는 처녀』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정형화한 선악 이분법, 감정의 과잉, 우연의 남발, 조력자(helper)의 존재, 그리고 반전과 비약 등을 꼽을 수 있다.

인민의 교양과 사상무장이라는 계몽의 목적은 인물들의 선악과 정형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다. 수탈당하는 꽃분리 가족을 위해 마을사람들 모두가 발 벗고 나서 도와주고 함께 정을 나누는 선량한 사람들로 그려져 있는 반면, 배지주 부부는 악독하고 인정머리라고는 전혀 없는 악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작품에서 호칭부터가 일단 ‘배기놈’이며, 이들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식 이하의 악행을 거듭한다. 꽃분리 동생 순희의 실명사건은 한 예다. 배지주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오빠 만나러 간 순희는 대청마루에 널려 있는 예쁘고 먹음직스런 대추를 보고 무심코 한 알 집어 든다. 이 순간을 목격한 배지주의 부인 장씨는 갑자기 “순희의 꼬챙이를 움켜쥐”(87쪽)고 “도적년의 새끼, 어따 손을 대, 대길!”(87쪽)하며 “역겨운 듯 한마디 웨치더니 힘껏 순희를 내동댕이”(88

쪽)친다. 비명을 지르며 댕돌 위로 넘어진 순희는 화로에서 끓고 있던 약탕관에 부딪치고 끓던 약이 눈 위로 쏟아진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소작농의 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안전부터 살피고 물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장씨는 “순희의 머리카락을 한줌이나 뜯어 쥘” 손을 “후들후들 떨”면서 “요 더러운 거지새끼 같은 것이 산삼을…에이 요년 죽여 버려도 시원치 않을!”(88쪽)이라는 폭언과 함께 순희를 부둥켜안은 어머니의 등짝을 사정없이 개화장으로 내리치는 악행을 보여준다.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냉혈한으로 그려진다. 계급갈등 구조를 선명하게 만들고, 독자들의 분노를 자극하려는 작위성과 의도가 전경화한 대표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인 장씨가 기독교 권사임에도 배지주는 친일파에다가 무속의 신봉자로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가 하면, 무당의 말을 믿고 부정 탕다며 자신의 하수인인 백만이를 시켜 순희를 은밀하게 없애 버리라고 명하는 후안무치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에 비해 꽃분이의 이웃집 영란이네 어머니와 식구들은 꽃분이 일가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식량을 가져다주거나 감옥에 갇힌 오빠 철용을 면회하러 떠나는 꽃분이에게 노잣돈을 만들어 주는 등 인정미 넘치고 도덕적인 인물들로 묘사된다. 또 당사주를 봐주는 노인은 꽃분이의 어려운 처지와 꽃을 팔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연을 알고 복채를 받지 않고 점을 보아주며, 생선장사 아주머니는 꽃분이에게 약값을 보태(299쪽)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준다. 심지어 시장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고학생도 꽃분이를 도와주는 조력자(helper)가 된다.

고소설을 연상케 하는 뚜렷한 선악 이분법과 상투화되고 과장된 인물 형상화도 문제지만, 작품 도처에 드러나는 감정의 과잉과 우연의 남발도 작품의 리얼리티를 해친다. 다음은 백만에게 산속에 버려진 순희가

“산전막”에 살며 과거에 의병운동을 했던 노인에게 구출되고, 감옥을 탈옥하여 조선혁명군이 된 철용이 임무 수행차 소조책임자와 함께 잠시 고향집으로 찾아가던 중 산전막에서 동생 순희와 재회하는 장면이다.

부동켜안은 오누이를 바라보며, 제 오래비의 얼굴 어루더듬으며 하소연하는 순희의 울부짓음을 들으며 소조책임자 강동무도 입술을 깨물고 울었다. 순희의 철없는 그 소리가 더욱 창자를 끊어주고 가슴을 지킨다.

그 역시 세상에 남다른 참사와 설움을 제 몸으로 겪고 제 눈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남다른 결심을 품고 혁명의 길에 들어선 사나이였다. 설움과 고통을 위하여 서는 한평생 다시는 눈곱에 눈물을 담지 않기로, 그것을 가슴속에 삼키고 그 쓰라린 피눈물로 저주로운 원수들에 대한 보복의 칼날을 버리어 세우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였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벌어진 너무도 처참한 오누이의 상봉이 상쇠처럼 굳어졌던 그의 심장을 터뜨려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462쪽)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꽃분이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극적인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 장면을 보는 독자들은 여기서 비로소 안도하고 위안을 받게 되지만, 인용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연과 과잉된 감정과 과격한 선동적 표현들이 한데 뒤섞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동적인 장면 속에 의도적으로 이념을 끼워 넣은 것이다.

끝으로 반전과 비약이다. 작품의 말미까지 완벽하게 지워져 있던 철용이 간수들을 처치하고 탈옥하여 조선혁명군이 되었다든지 순희를 해치려 한 배주지에게 항의하러 갔다 오히려 위기에 빠진 꽃분이를 오빠 철용이와 마을사람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배주주를 처단하고 꽃분이를 구해내는 장면이 그러하다. 한편으로는 통쾌하고 감동적인 장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기계를 타고 내려온 신(deus ex machina)처럼 한차례의 봉기로 모든 갈등을 일거에 해결하는 고소설적 해결 방

식은 많은 아쉬움을 남겨준다. 특히 일제의 압도적인 물리력이 건재한 상황에서 배지주와 일본 경찰을 징치하는 작은 승리 이후, 마을사람들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떠한 암시조차 없는 것은 반전과 비약의 서사가 남긴 의문부호이다.

문학사에서 계몽을 전면에 내세웠던 신소설이나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작품들이 잘 보여주고 있듯 계몽의 열정과 대중추수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기실 계몽은 대중성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대중성에 대한 열망의 크기만큼 통속성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중문학의 핵심 범주인 한국과학소설이 동도서기론자(東道西器論者)들에 의해 주도된 것¹⁸⁾이라든지 대중성의 확보를 위해서 고소설의 문법과 통속성의 도입을 고려해보자는 김기진의 주장과 그것은 무장해제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면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던 임화 사이의 대중화논쟁은 계몽과 통속의 긴장과 유혹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꽃 피는 처녀』는 이념의 콘텐츠로 장르 확장을 거듭하다 소설화된 북한식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는 크지만, 스토리나 인물 형상화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 등의 측면에서 어찌면 그것은 주체예술의 외피를 쓴 대중 소설일지도 모른다.

3. 『꽃 피는 처녀』와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의 상호텍스트성

『꽃 피는 처녀』는 사회주의 이념과 통속적·신파적 요소가 결합된 대중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 문학은 장르문학·공식문학(formula literature)·상업주의 문학·펄프 픽션(pulp fiction) 등을

18) 조성면, 『한국 과학소설 연대기』, 『작가들』 제47호, 2013. 겨울, 221~23쪽.

지칭하는 대중문학과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중문학이되 대중 문학이 아닌, 특수한 대중 문학이다. 작품이면서 상품이고, 통속성과 영웅주의와 행복한 끝내기(happy ending)를 반복하는 유사한 패턴과 구조를 지닌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학¹⁹⁾과는 다른 형태의 대중 문학이다. 즉 (1) 대중들을 겨냥한 작품으로, (2) 문학의 형상적 인식 능력을 토대로 대중들의 사상교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 대중들을 공감을 살 수 있는 흥미 있는 내용과 단순하고 선명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려는 북한식 문학인 셈이다. 여기에 항일혁명투쟁이나 민주국가건설 등의 국가적 목표와 주체사상과 교시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었다. 요컨대 표면적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이념의 선전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혁명문학을 표방하고 있을지라도 아주 같지도 않으면서 전혀 다르지도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며, 감정의 과잉 및 동정심을 유발하는 신파적인 내용에 격렬하고 폭력적인 표현들, 그리고 분노와 복수심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통속적 작품들이 바로 북한식 대중문학이다.

『꽃 피는 처녀』가 혁명이념의 전파와 교육을 위해 즉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사한 대중화의 전략은 선명한 선악이분법·감정의 과잉·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이고 거친 표현들·우연의 남발·반전과 비약 등의 스토리텔링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꽃 피는 처녀』는 상호텍스트적인 텍스트이기도 하다. 『꽃 피는 처녀』의 상호텍스트성은 우리 고소설이나 북한의 다른 소설이 아니라 외국문학, 특히 서두에서 밝혔던 오스트리아의 작가 아르투어 슈니츨러(Arthur Schnitzler, 1862~1931)²⁰⁾

19) 조성면, 『대중문학의 이해』, 『새 민족문학사 강좌 2』, 창비, 2009, 530~31쪽.

20) 아르투어 슈니츨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다. 심미적이고 세련된

의 소설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Der blinde Geronimo und sein Buder)』과 긴밀하게 호응한다. 물론 『꽃 파는 처녀』가 슈니츨러의 작품을 모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영향 없는 유사성이 비교문학의 일반적 주제라는 점을 고려하고, 또 1930년 김일성 창작설을 액면 그대로 인정할 경우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던 당시에 슈니츨러의 작품을 읽고 접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그러나 실증적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개의 경로가 있다. 하나는 두 텍스트의 스토리와 구조 그리고 모티프를 정밀하게 따져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슈니츨러 작품의 국내 유입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두 텍스트 사이의 영향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슈니츨러의 단편소설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1900)은 유치진이 『눈 먼 동생』이라 제목으로 번역하여 1938년 2월 〈극연〉에서 모두 16회에 걸쳐 무대에 올랐고, 1939년 2월 총 23회에 걸쳐 공연되었다. 이 작품이 연극으로 공연된 것은 〈꽃 파는 처녀〉보다 8년이 뒤처지지만 생각보다 일찍 국내에 번역, 소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슈니츨러 문학의 수용은 생각보다 활발했고,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 독문학의 선구자들이었던 김진섭·서항석을 비롯해서 이관용·조희순 등이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말 사이 독일문학과 슈니츨러에 대한 평론을 발표하고 있었던 것이다.²¹⁾ 김진섭은 1927년 호세이대학 독문과

감각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新빈(Wien)派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의학박사이며,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세밀한 심리분석은 이러한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 출세작 『아나톨(Anatol)』(1893)를 비롯하여 프로이트적 심리분석 방법을 활용한 『면사포(Der Schleier der Beatrice)』(1900)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박찬기, 『독일문학사』(제3판), 일지사, 1989, 417~19쪽.

21) 슈니츨러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주요 연구로 이유영, 「독일 현대문학의 이입과 수용」, 『독일문학』 제28집, 1982; 강두식, 「독일문학의 수용과 그 비판」, 『외국문학』 제30호,

를 졸업하고 외국문학 소개에 적극적이었던 ‘해외문화파’이 일원이었고, 서항석 역시 1929년 동경제대 독문과를 졸업한 전공자들이었던 것에 비해 국내에서 슈니츨러를 가장 먼저 소개한 이관용(李灌鎔, 1894~1933)의 존재는 매우 이채롭다. 언론인으로 파리 강화회의의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신간회에도 가담했던 이관용이 슈니츨러에 대해 주목한 것은 이례적인데, 그의 이력을 가만히 살펴보니 1921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철학박사를 받은 바 있어 독일어문학에 대한 조예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슈니츨러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생각보다 이른 1920년대 중반이었다. 1924년 9월 1일 이관용이 《개벽》 44호에 기고한 『신이상주의로 돌아가려는 최후의 덕국 문단』에서 호프만 스탈(Hugo von Hoffmannstahl, 1874~1929)·스테판 게오르게(Stefan George, 1868~1933)·슈니츨러 등을 소개한 것이다. 이어 서항석은 1931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동아일보》에 총4회에 걸쳐 슈니츨러의 생애와 주요 작품 등을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유치진의 연극 공연 이후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이 소설텍스트로 번역된 것은 1954년 10월 안수길이 청소년 잡지 『학원』에 발표한 것이 처음²²⁾이며, 책으로 출판된 것은 1959년 김진성이 독한대역본으로 펴낸 것이 최초이다.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의 독한대역은 1981년(장문사)·1982년(다락원)·1991년과 2013년(범조사) 등에서 출판사와 판형을 달리하여 계속 출판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슈니츨러의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이 낱·월북 작가 또는 다른 방식으로 김일성 혹은 북한의 문단과 예술계에까지 알려졌을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과 『꽃 파는 처녀』의 상호텍

1992; 김종희, 『한국에서의 슈니츨러 문학 수용』, 『헤세연구』 제5집, 2001. 4 등이 있다.
22) 슈니츨러 원작, 안수길 옮김, 『눈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 『학원』, 1954. 10, 230~235쪽.

스트성의 양상은 어떠한가.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은 사소한 오해로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형제가 다시 우애를 확인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진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그리고 있다. 어린 시절 장난감 화살로 동생 제로니모(Geronimo)의 눈을 멀게 만든 형 카를로(Carlo)는 죄책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쳐 동생의 눈이 되어서 살기로 결심하고 평생 동생의 곁을 지킨다. 이탈리아 변방의 알프스 산맥 근처에서 탁월한 기타 연주 실력을 지닌 제로니모가 길손들을 상대로 반주와 노래하는 것으로 두 형제가 근근이 삶을 이어간다. 길을 지나던 마부가 카를로에게 1프랑을 던져주고는 제로니모에게는 금화 20프랑을 주었다고 속인다. 마부에게 속은 제로니모는 형이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형제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동생의 오해를 풀기 위해 카를로는 여관에서 손님들의 지갑에서 20프랑을 훔친다. 범죄를 저지른 카를로는 동생 제로니모를 데리고 서둘러 여관을 빠져나와 도망치나 두 형제는 얼마못가 경관에게 체포된다. 사태의 전말과 형의 진심을 알게 된 제로니모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카를로의 손에 키스하고, 영문을 알 길 없는 경찰관은 두 형제에게 길을 재촉한다.

〈두 텍스트의 모티프와 주요 장면 비교〉

구분	모티프	주요 장면 비교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	1. 가난한 고아 형제 2. 실명한 동생 3. 연주와 구걸	그 장님은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에다 기타로 반주를 했다. 그는 고르지 않는 음성으로, 그가 술이 취했을 때면 언제나 그러듯 때로는 느닷없이 날카롭게 외치는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간간히 그는 하소연에도 아무 소용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머리를 위로 쳐들기도 했다. 그러나 뻗뻗한 검은 수염과 푸르스름한 입술을 지닌 그의 용모는 완전히 무감각했다. 나이가 위인 그 형은 활기 없이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누군가 그의 모자 속에 동전을 떨어뜨릴 때면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하면서 짹 짹 하지만 당황한 듯한 눈초리로 동냥 준 사람의 얼굴을 쳐

		다보았다. (허창은 역,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 다락원, 1982, 11쪽)
『꽃 파는 처녀』	1. 소작농 고아 자매 2. 실명한 동생 3. 연주와 구걸	(1) 아이들 옆에 다가간 고학생은 다시 한번 놀랐다. 앞에 나서서 꽃바구니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는 소경이었다. 그 뒤에 얼굴이 동그란 소녀가 꽃바구니를 들고 서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295쪽) (2) 사람들이 네거리에서 걸음을 멈추기 시작하였다. 가난하고 시름 많은 사람들은 난데없이 거리에 나타난 소경 처녀아이의 애달픈 노래의 사연을 들으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297쪽) (3) 네거리 어구에서 꽃분이는 길을 멈추었다. 멀리서 바이올린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흘러왔던 것이다. 귀 기울이니 꿩길락이울락하며 바이올린을 따라 부르는 노래소리도 들린다. 고학생이 제일 즐겨 켜군하는 구슬프고 처량한 그 곡조였다. (301쪽)

『꽃 파는 처녀』는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와는 지향이 다른 혁명 문학이며, 주체예술에서 파생된 작품이다. 제로니모 형제는 어린 시절의 불행으로 구걸하며 가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꽃분이 자매는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꽃을 팔며 동생 순희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언니를 도와주기 위한 돌출행동이다. 순희를 도와주는 고학생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책을 팔고,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계몽주의자이다. 그런데 1920~30년대 지방의 작은 소규모 읍내에서 고학생이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든지 먹고사는 것조차 힘겨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서양풍습이면서 사치품인 꽃을 파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작위적이다. 가난과 불행에 찌든 나머지 가족을 위해 기생이 된 다거나 몸을 판다는 설정은 근대 신파극이나 신파조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레퍼토리로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지만, 고결한 정신과 몸을 지키면서 ‘꽃’을 파는 것으로 설정된 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내지 주체예술을 표방한 북한문학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작품의 말미에서 꽃분이가 오빠 철용의 뒤를 따라

조선혁명군의 일원이 되고, 고학생도 결국 혁명동지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꽃 파는 처녀』의 창작목적과 이념적 지향을 잘 드러내는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꽃 파는 처녀』와 『눈 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전자가 후자의 영향을 받았거나 모티프를 차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실증적인 자료의 제시는 어렵지만, 작품의 디테일이나 모티프 그리고 주요 장면들이 유사성의 정도로 보면 두 텍스트가 강력한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꽃 파는 처녀』는 계몽과 선전이라는 혁명문학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독자와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신파적이고 대중적인 스토리에 주체예술로서는 이례적으로 외국문학을 텍스트의 목적과 흐름에 맞게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대중 소설, 즉 이념과 신파가 제후한 북한식 사회주의 대중문학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에 대신하여—북한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 모색을 위하여

이 글은 북한문학을 폄훼하거나 찬송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옹호하자거나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의 진짜 목적은 북한문학을 혁명이나 이념의 잣대로 보아왔던 (설사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북한문학을 대중문학의 관점, 더 나아가 상호텍스트의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소 정형화한 북한문학 및 예술연구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새로운 지평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데 있다.

북한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꽃 파는 처녀』는 OSMU를 통해 다양

한 텍스트들이 파생되어 나온 이념의 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다. 『꽃 피는 처녀』는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통하는 작품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은 북한식 문학예술의 한 범주로 연극과 가사 등 김일성 및 김정일의 창작과 지도로 만들어진 ‘항일무장투쟁기’의 혁명예술들을 가리킨다. 『꽃 피는 처녀』는 연극·가극·영화 등 복잡한 경로를 거쳐 소설이 된 작품이다. 이런 복잡한 텍스트 형성 과정과 역사로 인해 오히려 그것은 북한문학의 특수성을 살펴보는데 최적화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해서 확인했듯 북한문학은 경직된 공식문학이 아니다. 경직된 공식문학이면서도 대중들의 감성과 정서에 호소하는 신파와 통속성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대중소설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폐쇄적이고 자폐적 문학사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비공식적으로나마 외국문학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모습 나아가 경직된 문예정책의 틈 바구니에서도 문학과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이 미약하게나마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꽃 피는 처녀』는 혁명가극에서 파생된 소설로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통속적 내용을 소재로 토대로 주인공들의 이념적 각성과정을 그리고자 했으며, 이는 ‘인민성’을 구현하라는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이른바 “피바다식 창작원리”를 따른 것이다.

이 작품을 통속소설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념의 잣대를 걷어내고 오직 스토리와 미적 형식만을 놓고 본다면, 선명한 선악이분법·감정의 과잉·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이고 거친 표현들·우연의 남발·반전과 비약 등을 즐겨 활용하는 신파극이나 대중소설의 면모가 분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에 지속될 북한문학 또는 예술 연구에서는 북한의 문학예술이 지닌 신파성과 통속성을 대중문학 연구²³⁾의 차원에서 나아가 비교문학 및 상호텍스트성 관점에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꽃 피는 처녀』는 이 같은 작업의 시금석이 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 23) 대중문학의 대표 장르의 하나인 과학소설(SF)은 한 예다. 주체사상이 북한사회 전면
에 등장하기 이전 북한에서는 구소련 과학소설의 선구자라 할 이반 예프레모프
(1907~1972)의 장편소설 『안드로메다 성운』(1947)이 1960년대 초반부에 출판되고 있
었다. 또 박태원의 동양의 고전소설이며 대중소설이라 할 수 있는 『삼국지』가 1964
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총6권 분량으로 출판되는 등 대중소설의 수용과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의 과학소설에 대해서는 고장원, 『북한과학
소설의 이해 1, 2』,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을, 박태원 삼국지에 대해서는 조성
면, 『박태원 삼국지의 출간이 갖는 의미』, 『박태원 삼국지』 제1권(깊은샘, 2008); 송
강호, 『박태원 삼국지 번역과 판본 연구』, 『구보학보』제5집, 구보학회, 2009을 참고.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학원》 《조선문학》 《로동신문》 《문학예술사전》

2. 국내 논저

- 강두식, 『독일문학의 수용과 그 비판』, 『외국문학』 제30호, 1992.
- 고장원, 『북한과학소설의 이해 1, 2』,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 김연구, 『(교향곡)꽃 파는 처녀』, 문예출판사, 1987.
-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중희, 『한국에서의 슈니츨러 문학 수용』, 『혜세연구』 제5집, 한국혜세학회, 2001, 203~225쪽.
- 문예출판사 편집부,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 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총보)』, 문예출판사, 1973.
- 박찬기, 『독일문학사』(제3판), 일지사, 1989.
- 배성인, 『북한의 혁명가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5대 혁명가극을 중심으로』, 『극동문제』 제28집, 2003, 87~110쪽.
- 4·15창작단, 『꽃 파는 처녀』, 문예출판사, 1977.
- 서정남, 『북한영화탐사』, 생각의 나무, 2002.
- 송강호, 『박태원 삼국지 번역과 판본 연구』, 『구보학보』 제5집, 구보학회, 2009, 159~239쪽.
- 슈니츨러 원작, 안수길 옮김, 『눈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 『학원』, 1954. 10.
- 신형기, 『북한 소설의 이해』, 실천문화사, 1996.
- 아침 편집부, 『꽃 파는 처녀』(상·하권), 아침, 1989.
- 안함광·한효·엄호석·윤세평·김명수·박종석, 『해방 후 10년간의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 열사람 편집부, 『꽃 파는 처녀』(상·하권), 열사람, 1989.
- 윤혜숙, 『(그림책) 꽃 파는 처녀』, 금성청년출판사, 1985.
- 이상숙·김재용·김성수 외, 『북한시학의 형성과 사회주의 문학』 전6권, 소명출판, 2013.
- 이유영, 『독일 현대문학의 이입과 수용』, 『독일문학』 제28집, 한국독어독문학회, 1982, 240~269쪽.
- 2·16예술교육출판사 편,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 문예출판사, 1988.

- 조성면, 『대중문학의 이해』, 『새 민족문학사 강좌 2』, 창비, 2009.
- _____, 『한국 과학소설 연대기』, 『작가들』 제47호, 2013. 겨울.
- 천현식,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감정훈련: 집단주의와 '지도'와 '대중'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3권 3호, 북한대학원 대학교, 2010, 201~240쪽.
- 최탁호·김재하·한중모·김하명,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 문학』, 과학원출판사, 1959.
- 학우서방편집부, 『조선문학사년대표』, 학우서방, 1961.
- 황토 편집부, 『꽃 파는 처녀』, 황토, 1989.

Abstract

Shinpa, Popularity, and intertextuality of *Lady who sells Flowers*

Cho, Sung-Myeon(Inha University)

Lady who sells Flowers (꽃 파는 처녀) is classified as immortal classic masterpieces in the cultural field of North Korea. The compliment called Immortal classic masterpieces can be said the category of North Korean literary art, which revolutionary works created and directed by Kim Il-Sung or Kim Jong-Il's handling. The main works based on Juche thought(North Korea's self-reliance ideology) includes the following cultural texts: *Sea of Blood*, *Destiny of a member of self-defense*, *Seong-hwangdang (shrine to the village deity)*, *Ahn Jung-Geun shoot at Itou Hirobumi*, and *Lady who sells Flowers*. These remarkable texts were done to transform and to expand wide variety of genres that had made operetta, film, play, and novel. The existing researches on *Lady who sells Flowers* have run to carry on operetta and film, but have been endeavoring to go on literary text recreated by 4·15 Collaborate Writing Group (4·15창작단) in 1977 until now. *Lady who sells Flowers* can be said revolutionary cultural contents that make full use of play·operetta·nove·juvenile-literature·currency-design. While the kernel of the novel will center on conflict and resistance, the storyline of the novel unfolds around class struggle between the small peasant farmer Kkotbunyi' family and the big landowner Bae's couple. It is considered that *Lady who sells Flowers* has always remained adhere to its principles of socialists realism and loyal to canon and paragon of Juche thought. But it was more of *Shipageuk* (transpontine melodrama) and popular fiction by the standard of aesthetic form and story. In addition, Arthur Schnitzler's short story "Der blinde Geronimo und sein Buder" (1900) had a big impact on the revolutionary novel of NK. As we reported and reviewed, studies on NK literature conducted in the future have to look at the level of popular literature study and the relationship affects between North Korean's and other countries' work.

『꽃 파는 처녀』의 신파성과 대중성 그리고 상호텍스트성 / 조성면 141

(Key words : *Lady who sells Flowers*, Arthur Schnitzler, “Der blinde Geronimo und sein Buder”, Juche thought, *Shipageuk*, socialists realism, NK literature)

투고일 : 2014년 2월 27일 투고

심사일 : 2014년 3월 5~28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4년 4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11일 게재확정